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마태복음 2:15):

마태의 호세아 11:1 인용에 나타난
기독론적-모형론적 해석

김창훈

(향상교회, 신약학)

- I. 서론
- II. 방법론: 모형론적 해석
- III. 본문 연구
- IV. 결론

[초록]

본 소논문은 아기 예수가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도피한 것을 호세아 11:1(“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의 성취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15의 의미를 탐구한다. 필자는 먼저 모형론 해석의 역사를 간단히 살핀 후에 “모형론”이라는 용어를 탐구한다. 기독교적-모형론적 해석 관점에서 아기 예수의 애굽행을 호세아 11:1의 성취라고 본 마태의 이해는 네 개의 논리적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층은 역사적 층이다. 이 층에서 호세아는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성을 전제한다. 둘째 층은 이스라엘 모형론 층이다. 이 층에서 호세아는 미래 이스라엘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새 출애굽을 고대한다. 셋째 층은 모세 모형론 층이다. 이 층에서 호세아는 미래에 새 모세가 등장하여 새 출애굽을 이끌 것을 기대한다. 넷째 층은 예수의 성취 층이다. 이 층에서 예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새 모세로서 새 출애굽에 대한 호세아의 기대를 성취한다. 마태는 예수를 첫 출애굽 사건 속의 이스라엘과 모세라는 ‘모형들’이 예표하는 ‘원형’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아기 예수의 이집트 도피를 기독교적-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며, 호세아 11:1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를 새 출애굽의 수혜자의 대표로 제시할 뿐 아니라 그를 새 출애굽의 실행자로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2:15는 예수를 새 이스라엘이요 새 모세로 제시한다.

키워드: 마태복음 2:15, 모형론, 마태복음, 신약의 구약 사용,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

논문투고일 2019.07.22. / 심사완료일 2019.08.26. / 게재확정일 2019.08.29.

I. 서론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문구로 소개되는 공식 인용(formula quotations)이 10회 등장한다. 2회는 마지막 수난 주간에 대한 기사에 나타나고(마 21:4-5; 27:9-10), 4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밖 공적 사역 중에 나타나고(마 4:14-16; 8:17; 12:17-21; 13:35), 4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야기에 나타난다(마 1:22-23; 2:15; 2:17-18; 2:23).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야기를 다루는 마태복음 1-2장의 작은 범위에서 공식 인용이 4회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들을 도입부에서 소개하기 때문이다.¹ 특별히 호세아 11:1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15은 아기 예수가 부친 요셉을 통해 유아 시절 이집트로 도피한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해석한다. 마태의 이러한 모형론적 해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다층적이다. 호세아가 주전 15세기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한 층과 호세아가 새로운 출애굽이 행해질 것을 기대한 층들과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호세아의 기대가 성취된다고 이해한 층으로 구성된 다층적 해석이다. 본 논문은 모형론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과 더불어 호세아 11:1에 대한 마태의 모형론적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밝힐 것이다.

II. 방법론: 모형론적 해석

모형론(typology)은 모형이라는 뜻의 헬라어 튀포스(τύπος)에서 기원했다. 신약에서 튀포스는 ‘흔적’(요 20:25), ‘형상’(행 7:43), ‘문자’(행 23:25)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목회서신과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6:17 등에서는 규범으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뜻하는 ‘본’, ‘모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 하지만 이러한 서신서 안의 용법들 중 고린도전서 10:6과 로마서 5:14에서 튀포스는

¹ F. P. Viljoen, “Fulfillment in Matthew,” *Verbum et Ecclesia* 28 (2007), 305.

² Leonhard Goppelt, “τύπος, ἀντίτυπος, τυπικός, ὑποτύπωσις,” *TDNT*, 8:248.

구약의 ‘모형’을 뜻하는 특별한 해석학적 용어로서 사용되었다.³ 해석학의 범주로서 모형론은 “성경 저자가 튀포스라는 어휘를 사용하든 안 하든, 모형(type)과 원형(antitype) 사이의 명시적 연결을 언급하든 안 하든,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와 신약의 인물, 사건,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이나 대응을 찾는 것”을 가리킨다.⁴ 이러한 해석학적 시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타당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뜻”(the ever-relevant will of God)이 성경 전체에 걸쳐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며,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오래 전에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그 시대에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⁵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일(성경에 드러난 대로)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신다(혹은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다).”⁶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 사이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⁷ 모형과 원형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구약 안의 책들 사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사야 40:3-5; 43:16-24; 49:8-13에서 구원의 모형으로 기능하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출 17:1-7)은 후대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굳은 마음의 예시로 제시되며(시 95:7-11), 에덴동산은 새로운 낙원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며(사 11:6-9), 다윗 왕은 미래에 오실 왕에 대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사 11:1; 렘 23:5; 겔 34:23-24, 암 9:11).⁸ 이 외에도 창조와 새 창조, 아담과 그리스도, 출애굽과 신약의 구원 개념 사이에서도 모형과 원형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⁹

모형론(typology)은 종종 알레고리(allegory)와 혼동되어 오해를 받아왔다.

3 Goppelt, “τύπος, ἀντίτυπος, τυπικός, ὑποτύπωσις,” 8:248.

4 C. A. Evans and L. Novakovic, “Typology,”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2nd ed., eds. Joel B. Green, Jeannine K. Brown, Nicholas Perri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3), 986. 이 책은 앞으로 *DJG²*로 표기함.

5 Evans and Novakovic, “Typology,” *DJG²*, 987.

6 Evans and Novakovic, “Typology,” *DJG²*, 987.

7 A. Berkeley Mickelsen, “Bible, Interpretation of The,”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8), 313.

8 C. A. Evans and L. Novakovic, “Typology,” *DJG²*, 986.

9 Stanley Grenz, David Guretzki, Cherith Fee Nording, *Pocket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117.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미리 그려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알레고리 해석은 도덕적, 신학적 상징과 사실을 성경의 다양한 디테일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구약에 기록된 사건의 역사성과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문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 하지만 모형론은 성경의 사건, 인물, 제도를 구속사적 틀 안에서 현재, 미래의 유사한 사건, 인물, 제도와 연관 지어 공통되는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¹⁰ 따라서 역사성과 문자적 의미가 중요하며, 일차적인 문자적 의미의 기초 위에 이차적인 상징적 의미가 세워져야만 한다. 또한, 구약의 모형(type)이 신약의 원형(antitype)과 일치해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의해서 보충되고(complemented) 초월되어야(transcended)야 한다.¹¹

사실 모형론의 배아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라는 해석학의 두 흐름의 상호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 배후에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고 보았기에, 플라톤의 이원론(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와 열등한 인지감각의 세계)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예표와 그림자를 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재와 본질을 찾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도덕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 의미, 즉 알레고리적 의미를 찾는 것을 최고의 해석이라고 보았다.¹²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모형론은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의미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안디옥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하면서, 성경 내용의 역사성과 문자적 의미에 철저히

10 C. A. Evans, "Typology,"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oel B. Green, Scot McKnight, I. Howard Marsha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862. 이 책은 앞으로 DJG³로 표기함.

11 E. Earles Ellis, "Foreword," in Leonhard Goppelt, *Typology: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Eerdmans, 1982), x. E. E. 엘리스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모형론의 원리를 두 개념으로 정리했다: 역사적 유사성(historical correspondence), 확장성(escalation).

12 Richard M. Davidson, *Typology in Scripture: A Study of Hermeneutical Typos Structures* (Berrien Springs, MI: Andrew University Press, 1981), 22.

기초한 모형론만을 찬성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모형과 원형의 관계는 숨겨진 영적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인지 가능한 의미였던 것이다.¹³ 그래서 안디옥 학파의 모형론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었다.

모형론적 해석과 관련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자유로운 영적 해석에 기울어지는 것을 반대하였고, 안디옥 학파의 철저한 역사적, 문자적 기초에 근거한 모형론적 해석을 지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문법적-역사적 주해를 통한 문자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문자적 의미란 기독교적 해석과 동의어였다. 루터는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was zu Christo treibet)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적 해석 원리를 강조했고, 필연적으로 모형론적 해석을 선호했다. 그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 상징되거나 약속된 바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고 보았다.¹⁴ 존 칼빈(John Calvin)도 모형론적 해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또 다른 차이는 모형들 안에 있다. 구약은 진리의 형상만을 보여주며, 그 안에 실체와 본질이 없고, 그림자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신약은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실체를 보여준다.”¹⁵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에서 부써(Martin Bucer)의 해석을 기대어 삼손을 모형론의 예로 제시한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5). 의심 없이 이 구절은 삼손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삼손이 백성의 ‘구원자’ 혹은 ‘구속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손의 능력을 통해 성취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장차 세상에 나타날 더 온전한 구원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삼손에 대해 예언하는 모든 것은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¹³ Davidson, *Typology in Scripture*, 24.

¹⁴ Davidson, *Typology in Scripture*, 29-30.

¹⁵ John Calvin, *Institutes*, 2.10.4.

그리스도는 원 모델이고, 삼손은 열등한 대응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을 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충만히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¹⁶

근대에 모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자는 패트릭 페어베인(Patrick Fairbairn, 1805-1874)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모형과 추론으로 찾아낸 모형이라는 두 종류의 모형을 주장함으로써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주장한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명한 모형만을 인정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을 주장한 허버트 마쉬(Herbert Marsh, 1757-1839)를 중재하면서, 페어베인은 성경에 나타난 모형론의 사용에 근거한 모형론적 해석의 규칙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그 자체로 금지된 것이나 죄악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복음 아래 선한 것의 모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¹⁷ 즉, 모형과 원형 사이의 관계는 선한 것에 대해 적용해야 하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특정한 모형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고대 예배자들이 장차 성취될 것에 대해 가졌던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깨달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진리와 계시가 주는 빛에 의해 인도받아야 한다.”¹⁸ 즉, 인물, 사건, 제도에 대해 모형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것이 지시하는 원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복음이 주는 계시로부터 모형의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신적 사건들과 종교적 제도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형들 안에 나타난 진리들과 개념들에 친숙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¹⁹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종교 제도들이 나타내는 구속사적 진리를 발견하려 해야 한다. 넷째, “상징이나 제도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나타난 근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는 복음의 실체에 대해 하나 이상의

16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164.

17 Patrick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Whole Series of the Divine Dispensations* (Edinburgh: T&T Clark, 1864), 1:176.

18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1:181.

19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1:186.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 하나 이상에 대해 적용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²⁰ 즉, 구약의 모형 자체가 문자적으로 지시하는 바는 하나이지만, 구속사적 발전을 통해 성취되는 원형적 의미는 하나 이상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모형과 원형 사이의 [수준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²¹ 즉, 모형에서 원형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구속사적 발전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형론에 관하여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루터, 칼빈, 페어베언 등이 제시한 정의들과 예시들과 모형론의 규칙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페어베언은 구체적인 모형론의 해석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모형론적 해석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의 관계를 모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아주 다양하며 많기 때문에 일련의 고정된 원리들을 적용하여 모형론 존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모형과 원형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 레온하르트 고펠트(L. Goppelt)의 주장대로 모형론은 “특정한 해석 법칙으로 이루어진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영적 해석 방법이며 구속사 안에서 그 완성의 개별적 유형을 찾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² 단, 알레고리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본문의 역사성과 문자적 의미를 존중하면서 신구약의 사건, 인물, 제도 사이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공통성(correspondence)과 확장성(escalation)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III. 본문 연구

1. 문제 제기

현자들(*μάγοι*)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²⁰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1:191.

²¹ Fairbairn, *The Typology of Scripture*, 1:196.

²² Leonhard Goppelt, *Typology: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Eerdmans, 1982), 202.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을 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움을 구한 대상은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이었다. 아마도 현자들은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면 그 아기는 왕궁이나 가까운 곳에서 태어날 것으로 여겼기에 헤롯 대왕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현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였고, 천사들의 현몽을 따라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현자들에게 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박사들로부터 들은 지식에 근거하여 두 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요셉은 이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한 후였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이 애굽행 도피가 우연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호세아 11:1에서 예언한 바가 이 일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 쓴다. 어떻게 약 750년 전 호세아의 예언이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어떻게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 안에서 “내(하나님)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가?²³

2. 마태복음 2:15의 인용과 호세아 11:1의 본문 비교

호세아 11:1의 칠십인역(LXX)은 마태복음 2:15와 헬라어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칠십인역 본문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불렀다”로 기록한다. 호세아 11:1의 ‘불렀다’를 의미하는 *μετεκάλεσα*를 마태는 *ἐκάλεσα*라는 유의어로 표현했고, 호세아 11:1의 ‘그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타 테크나 아우투(*τὰ τέκνα αὐτοῦ*)를 ‘나의 아들’(*τὸν υἱόν μου*)로 바꾸어 표현했다.

호세아 11:1(MT) וְיָצֵאתִי מִצְרָיִם מִצְרָיִם (부밌미초라임 카리티 리브니)

²³ Grant R. Osborne,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99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답하면서 마태복음 2:15를 주석한다.

호세아 11:1(LXX) ἐξ Αἰγύπτου μετεκάλεσα τὰ τέκνα αὐτοῦ
(엑스 아이굽투 메테칼레사 타 테크나 아우투)
마태복음 2:15(NA28) ἐξ Αἰγύπτου ἐκάλεσα τὸν υἱόν μου (엑스
아이굽투 에칼레사 톤 휘온 무)

학자들은 마태가 칠십인역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호세아 11:1의 마소라 텍스트(MT)를 참고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²⁴ 히브리어 본문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기록한다. 칠십인역 호세아 11:1의 ‘그’는 집합적 단수이고, 구약성경 전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것을 기억한다면,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마태복음 세 본문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3. 호세아의 논리를 따른 마태의 호세아 11:1 해석

호세아 11:1의 칠십인역이든 히브리어 본문이든, 거기서 뜻하는 ‘내 아들’ 혹은 ‘그의 자녀’는 일차적으로 메시아적 인물보다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예를 들어 출 4:22의 ‘내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언약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다.²⁵ 마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호세아 11:1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품으신 구속사적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준다.

일견 마태의 독법은 호세아 11:1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1 자체는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불러낸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15에서 예수님은 애굽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²⁶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15이 말하는 호세아 11:1의 성취가 마태복음

²⁴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d, 1998), 36.

²⁵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Dallas: Word, 2002), 177-78. 스투어트는 ‘내가 사랑하여’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적 신실함’(covenantal fidelity, 6:5; 7:8, 13; 10:15; 23:6)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²⁶ D. A. Carson, “Matthew,” in *Matthew & Mark*, EBC 9, rev. ed., ed.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118.

2:13-23 단락 전체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마태복음 2:13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과 마태복음 2:23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산 것까지의 사건 전체가 호세아 11:1을 성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호세아 11장과 호세아 전체 문맥은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며(7:11, 16b; 8:13b; 9:3, 6; 11:5), 또 다른 애굽 탈출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다(호 1:11; 11:11).²⁷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후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요약적으로 되풀이하셨음’(recapitulate)을 기억할 때, 호세아가 내다본 ‘또 다른 애굽으로의 귀환’(another return to Egypt in the future)과 뒤 따르는 ‘또 다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another exodus from Egypt in the future)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마태는 억지스럽게 기독교적 전제를 호세아 본문에 주입하여 읽은 것이 아니다.²⁸ 마태는 호세아 11:1을 호세아 11장의 문맥과 호세아서 전체의 빛 안에서 읽으며, 호세아 자신이 갖고 있던 출애굽에 대한 논리를 가져와서 사용한다. 마태는 호세아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본 것을 자신도 보고 있다.²⁹ 물론 계시의 발전 선상에서 그리스도 이후를 산 마태가 그리스도 이전을 산 호세아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이집트 도피를 호세아 11:1의 성취로 이해한 것이 ‘충만 의미’(sensus plenior)는 아니다.³⁰ 즉, 마태복음 2:15는 호세아가 이해하지 못하던 바를

²⁷ Carson, “Matthew,” 118.

²⁸ Gregory K.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One More Time,” *JETS* 55 (2012), 697, 700.

²⁹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699.

³⁰ 신약의 구약 사용에 대하여 ‘충만 의미’(sensus plenior)를 인정하는지, 신약 저자들이 구약 문맥을 존중했는지, 신약 저자들의 해석법이 제 2성전기 해석법과 달랐는지 등에 대하여 세 명의 학자들(윌터 C. 카이저 Jr., 대럴 L. 보크, 피터 엔즈)의 지상 논쟁을 담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Walter C. Kaiser, Jr., Darell L. Bock, Peter Enns, *Three Views on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피터 엔즈 (Peter Enns)와 신약의 구약 사용에 대한 논쟁의 결과물로 저술된 그레고리 비일(Gregory K. Beale)의 다음 책도 참고하라. Gregory K. Beale, *The Erosion of Inerrancy in Evangelicalism: Responding to New Challenges to Biblical Authority* (Wheaton: Crossway, 2008).

마태가 밝혀낸 결과가 아니며, 호세아가 기대하고 있던 바를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 사건 속에서 성취를 발견한 결과다.

4. ‘새로운 출애굽’(new exodus)의 네 층

마태가 호세아 11:1을 모형론적, 기독교론적으로 읽어 예수님에게 적용하기까지 마태의 두뇌 속에서 일어난 사고의 단계가 있다. 호세아가 첫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구원자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마태가 이러한 호세아의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정이 있다. 마태는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와 나사렛 귀환을 호세아 11:1(“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의 성취로 보았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2:15에 나타난 ‘새로운 출애굽’ 해석 논리를 다음의 네 층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4층	성취 층	두 번째, 세 번째 모형론 층의 기대가 애굽 도피 사건과 십자가-부활에서 성취된 층
제3층	모세 모형론 층	새로운 모세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모형론 층
제2층	이스라엘 모형론 층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모형론 층
제1층	역사적 층	호세아 11:1에 언급된 첫 번째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층

마태가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호세아 11:1의 성취라고 말할 때, 그의 사고 전개에서는 이 네 개의 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1의 가까운 문맥과 전체 문맥을 보면, 호세아는 분명히 주전 15세기에 일어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고, 동시에 새로운 모세라 부를 수 있는 구원자 인물이 나타나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는 선지자 호세아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두 가지 기대가 아기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아기 예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요셉의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약 750년 전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일 수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네 개의 층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마태가 호세아 11:1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한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1) 첫째 층: 역사적 층(historical level)

첫째 층은 B.C. 1446년에 일어난 첫 출애굽 사건이라는 역사적 층이다. 호세아 11:1은 출애굽기가 기록하는 주전 15세기의 역사적 출애굽을 회상한다. 극단적인 비평가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출애굽이 일어난 역사적 층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 11:1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과거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층에서 ‘내 아들’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예. 출 4:22-23).³¹ ‘불렀다’는 동사 ‘에칼레사’(ἐκάλεσα)는 아웨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역사 속의 행동을 가리킨다.³²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부르신 역사적 구원 사건이 있었기에, 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호세아가 미래의 구원 사건을 내다볼 수 있었고, 마태는 호세아가 내다본 미래의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의 생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역사적 첫 층은 그 위에 둘째, 셋째, 넷째 층이 세워지는 토대가 된다.

(2) 둘째 층: 이스라엘 모형론 층(Israel-typology level)

둘째 층은 호세아 11:1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모형론 층이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 것이 이 층에서다. 호세아는 11:1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집합적 용어”(a collective term)로서 “내 아들”을 사용했다.³³ 선지자들은 종종 첫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더 위대한 구원

31 Duane A. Garrett, *Hosea, Joel*, NAC (Nashville: B&H, 1997), 219.

32 Stuart, *Hosea-Jonah*, 178.

33 Richard N.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8.

역사에 대한 구약의 강력한 상징”으로 보았다.³⁴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첫 출애굽을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동일한 패턴이 다시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역사적 패턴”이라고 보았다.³⁵ 그레고리 비일(Gregory K. Beale)은 마태가 호세아 11:1을 인용할 때 그 구절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지적 주변 시야(a cognitive peripheral vision)를 가지고서 동일한 형태의 개념을 가진 구약의 다른 장들(chapters)을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⁶ 사람의 시야는 ‘직접 시야’(direct vision)와 ‘주변 시야’(peripheral vision)가 있는데, 정면으로 보는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 시야를 ‘직접 시야’라고 하고 직접 시야 밖에 있는 상하좌우 가장자리의 물체와 운동을 보는 능력을 ‘주변 시야’라 한다.³⁷ 비일은 육체의 눈과 마찬가지로 지성의 눈에도 직접 시야와 주변 시야가 있으므로,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해당 절들(verses)에 나타나는 명시적(explicit) 인지의 영역보다 더 넓은 주변 장들(chapters)과 책 전체에 대한 암시적(implicit) 인지 영역에 대한 ‘인지적 주변적 시야’가 작동한다고 주장한다.³⁸

비일은 마태복음 2:15의 호세아 11:1의 인용이 바로 이러한 인지적 주변 시야가 작동한 결과라고 옳게 주장한다.³⁹ 따라서 마태는 호세아서 전체의 넓은 문맥 안에서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의 미래 귀환(호 7:11, 16b; 8:13b; 9:3, 6)과 애굽으로부터의 미래 탈출(호 1:11; 11:11)이라는 개념을 발견하였기에,⁴⁰ 예수님의 애굽 도피와 이스라엘 귀환을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미래에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 바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⁴¹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경우 구약 이스라엘과의 평행을 보여준다.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모형(type)의 원형(antitype) 혹은

34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80-81.

35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5.

36 Gregory K. Beale, “Inaugural Lectures: The Cognitive Peripheral Vision of Biblical Authors,” *WTJ* 76 (2014), 270.

37 Beale, “Inaugural Lectures,” 265.

38 Beale, “Inaugural Lectures,” 265.

39 Beale, “Inaugural Lectures,” 275-77.

40 Carson, “Matthew,” 118; James Limburg, *Hosea-Micah*, Interpretation (Atlanta: WJK, 1998), 707; Stuart, *Hosea-Jonah*, 183.

41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4.

“이스라엘의 모형론적 재현”(the typological recapitulation of Israel)으로 제시된다.⁴²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15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 출애굽기 4:22, 예레미야 31:9, 시편 89:27에서 이스라엘을 ‘내 만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다(마태복음 4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에게 법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법(산상수훈, the Beatitudes)을 주신다(마태복음 5장).

따라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시고(마 2:14-15),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마 2:21)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하시는 분”⁴³으로서 그리고 “갱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 혹은 중심”⁴⁴으로서 행하신 일이다. 둘째 층에서 마태는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다.⁴⁵ 아기 예수가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사건은 역사적 출애굽(첫째 층)을 닮은 미래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을 기대한다. 아기 예수는 과거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의 경험을 몸소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몸소 미리 보여준다. 즉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출애굽의 수혜자의 대표로서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2:15의 아기 예수의 경험을 통해 보면, 과거

42 Carson, “Matthew,” 118. Osborne, *Matthew*, 99는 카슨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시 살아내고 있다”(Jesus as Son is reliving the experiences of God’s children, Israel.)라고 설명한다.

43 Craig S. Keener, *The Gospel of Matthew: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109.

44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Matthew 1-7*, ICC (London: T&T Clark, 1988), 263.

45 Keener, *The Gospel of Matthew*, 108.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 미래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의 구원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⁴⁶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모형론(Israel Typology)이라 부를 수 있다.

(3) 셋째 층: 모세 모형론 층(Moses-typology level)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자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층인 모세 모형론 층이며, 호세아는 이 층에서 새로운 출애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에 주목한다. 비밀은 호세아 11:10-11과 이 구절이 인유(allude)하는 민수기 23, 24장(예를 들어, 민 23:22a, 24; 24:8; 24:9a)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호세아 11:10-11은 애굽으로부터의 미래 귀환을 예언하는 구절일 뿐 아니라 미래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 ‘사자’같은 왕적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⁴⁷ 민수기 23:22a(“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와 민수기 24:8(“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에 대해서 예언하며, 민수기 23:24과 민수기 24:9a가 “암사자처럼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출애굽기 1:10과 이사야 11:16을 인유하는 호세아 1:11은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 즉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또한 호세아 3:5에 가서는 “이러한 귀환이 마지막 날의 다윗 혈통의 왕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⁸

마태는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라는 호세아서의 기대를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적용한다. 학자들은 호세아 1:10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the sons of the living God)을 가장 두드러지게

46 Calvin,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158: “Matthew therefore reminds us, that it is no strange or unwonted occurrence for God to call his Son out of that country; and that it serves rather to confirm our faith, that, as on a former occasion, so now again, the Church of God comes out of Egypt.”(강조는 나의 것)

47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0-03.

48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9.

사용한 신약의 구절이 마태복음 16:16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기독교적 고백(“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본다.⁴⁹ 마태복음 16:16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호세아 1:10을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끄는 독특한 왕적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⁵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15이 호세아 11:1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아들’에 대한 묘사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독특한 ‘아들’과 연관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미래 출애굽을 기대하는 호세아 11:1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15에서 모세 모형론을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혹자는 마태복음 2:15에서 이스라엘 모형론과 모세 모형론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울리히 루츠(Ulrich Luz)는 이스라엘 모형론은 인정하지만 모세 모형론은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⁵¹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문맥과 인유된 다른 구약 본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형론뿐만 아니라 모세 모형론도 마태복음 2:15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데일 앨리슨(Dale C. Allison)은 “마태복음 2:15에서의 새로운 출애굽 경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처럼 만들고 모세처럼 만든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가 된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되고 동시에 참 이스라엘을 실현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어떤 긴장이나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⁵²라고 주장한다. 로버트 건드리(Robert H. Gundry)도 “마태는 예수님을 더 위대한 모세로 만든다”⁵³고 말한다.

마태복음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마태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태복음 2:15의 호세아 11:1 인용이 예수님을

49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9. 더 자세한 논의로는 Mark J. Goodwin, “Hosea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in Matthew 16:16b,” *CBQ* 67 (2005), 265-83을 보라.

50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9.

51 Ulrich Luz, *Matthew 1-7*, CC (Minneapolis: Fortress, 1989), 186 n.18.

52 Dale C. Allison *The New Moses: The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3), 142.

53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33.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할 이스라엘의 대표’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⁵⁴ 우리는 마태복음 2:15에서 ‘내 아들’로 불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아야 한다. 호세아는 과거 모세의 구원 사역(첫째 층)이 새로운 모세인 예수님의 미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았고, 마태는 그것을 마태복음 2:15의 호세아 11:1 인용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 모형론(Moses Typology)이라 부를 수 있다.

(4) 넷째 층: 예수님의 성취 층(Jesus' fulfillment level)

호세아는 모세와 같은 다윗 혈통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미래 출애굽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넷째 층은 바로 이러한 기대가 예수님의 애굽 도피와 애굽에서의 귀환 사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다고 마태가 생각하는 층이다. 마태는 예수님 가족의 애굽 도피(마 2:14)와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마 2:21) 역사적 사건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호세아의 기대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것을 안다. 새로운 출애굽에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를 계승하신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스라엘 나라로서 경험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경험하신다.⁵⁵ 아기 예수의 애굽-이스라엘 왕복 여정(마 2:13-23)은 예수님이 전체 생애(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 사건을 요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예수님의 애굽-이스라엘 왕복 여정을 호세아 11:1의 성취라고 보는 것은, 아기 예수가 경험한 이 여정 너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온전한 성취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⁵⁴ Allison, *The New Moses*, 268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모세 모형론 구절을 제시한다. 엘리스는 마태복음 1-2장의 유아기 내러티브와 물 위를 걸으심(3:13-17), 광야 시험(4:1-11), 산에서의 새로운 율법 수여(5-7장), 위대한 감사(11:25-30), 변화(17:1-9), 지상명령(28:16-20)에 명백한 모세 모형론이 나타나며, 명백해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구절들로서 군중을 먹이신 사건(14:13-22; 15:29-39), 예루살렘 입성(21:1-17), 최후의 만찬(26:17-25)을 제시한다.

⁵⁵ Beale,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705.

IV. 결론

마태복음 2:15에 나타나는 호세아 11:1 인용은 호세아 11:1과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마태의 기독교론적-모형론적 해석을 반영한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이집트 도피와 이스라엘로의 복귀 사건 속에서 호세아 11:1과 호세아서 전반에 나타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가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마태의 기독교론적-모형론적 해석은 네 개의 논리적 층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 해석은 주전 15세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역사적 출애굽 사건에 기초를 둔다(첫째 역사적 층). 그리고 호세아 11:1의 크고 작은 문맥은 호세아가 과거 출애굽 사건을 닮은 미래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대하며(둘째 이스라엘 모형론 층), 과거 모세의 구원자 역할을 닮은 미래 새로운 모세의 출현을 기대하였음(셋째 모세 모형론 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태의 모형론적 해석은 호세아의 두 가지 모형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본다(넷째 예수님의 성취 층). 마태는 아기 예수의 애굽-이스라엘 왕복 여정이 그분의 전체 생애(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를 통해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건을 요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한 예수 가족의 애굽 도피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호세아 11:1의 성취인용(fulfillment quotation)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조한다. 특별히 마태는 호세아 11:1과 주변 문맥에서 새로운 출애굽, 즉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인지적 주변 시야'를 통해 발견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아기 예수의 이집트 피난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부활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마태에게 있어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new exodus)을 일으키는 새로운 모세(new Moses)이며,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new Israel)이다.

[참고문헌]

- Allison, Dale C. *The New Moses: The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3.
- Beale, Gregory K. "Inaugural Lectures: The Cognitive Peripheral Vision of Biblical Author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6 (2014), 263-293.
- _____. *The Erosion of Inerrancy in Evangelicalism: Responding to New Challenges to Biblical Authority*. Wheaton: Crossway, 2008.
- _____. "The Use of Hosea 11:1 in Matthew 2:15: One More Tim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5 (2012), 697-715.
- Calvin, Joh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10.
- _____.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 Carson, D. A. "Matthew." Pages 23-670 in *Matthew & Mark*.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9. Rev. ed., eds.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Davidson, Richard M. *Typology in Scripture: A Study of Hermeneutical Typos Structures*. Berrien Springs, MI: Andrew University Press, 1981.
- Davies, W. D. and Dale C. Allison. *Matthew 1-7*.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London: T&T Clark, 1988.
- Evans, C. A. "Typology."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ited by Joel B. Green, Scot McKnight, I. Howard Marshal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Evans, C. A. and L. Novakovic. "Typology."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2nd ed. eds. Joel B. Green, Jeannine K. Brown, Nicholas Perri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3.
- Fairbairn, Patrick. *The Typology of Scripture: 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Whole Series of the Divine Dispensations*. Edinburgh: T&T Clark, 1864.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rrett, Duane A. *Hosea, Joel*.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1997.
- Goodwin, Mark J. "Hosea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in Matthew 16:16b,"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7 (2005), 265-283.
- Goppelt, Leonhard. *Typology: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Eerdmans, 1982.
- Grenz, Stanley, David Guretzki, Cherith Fee Nording. *Pocket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 Gundry, Robert H. *Matthew: A Commentary on His Handbook for a Mixed Church under Persecu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33A. Dallas: Word, 1998.
- Kaiser, Walter C., Jr., Darell L. Bock, Peter Enns. *Three Views on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Keener, Craig S. *The Gospel of Matthew: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Limburg, James. *Hosea-Micah*. Interpretation. Atlanta: WJK, 1998.
- Longenecker, Richard N.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 Luz, Ulrich. *Matthew 1-7*. Concordi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1989.
- Mickelsen, A. Berkeley. "Bible, Interpretation of The."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8.
- Osborne, Grant R. *Matthew*.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Stuart, Douglas.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31. Dallas: Word, 2002.
- Viljoen, F. P. "Fulfillment in Matthew." *Verbum et Ecclesia* 28. 2007.

[Abstract]**“Out of Egypt I called my son”(Matthew 2:15):
Matthew’s Christological-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Hosea 11:1**

Chang Hoon Kim
(Hyangsang Church, New Testament)

This article attempts to delve into the meaning of Matthew 2:15 which states that baby Jesus’ flight to Egypt to escape the persecution of Herod the Great was to accomplish Hosea 11:1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Initially I briefly review the history of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and investigate the term “typology.” In terms of Christological-typological interpretation, Matthew’s understanding of baby Jesus’ entrance into Egypt as the fulfillment of Hosea 11:1 is composed of four logical levels. First level is the historical level. On this level Hosea presupposes the historicity of the first exodus which took place in 1446 B.C. Second level is the Israel-typological level. On this level Hosea looks forward to seeing the new exodus through which Israel will experience the liberation in the future. Third level is the Moses-typological level. On this level Hosea anticipates the new Moses who will lead the new exodus in the future. Fourth level is Jesus’ fulfillment level. On this level Jesus both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new Israel and as the new Moses fulfills Hosea’s expectation of the new exodus. Matthew understands Jesus as the ‘antitype’ foreshadowed by the ‘types’ of Israel and Moses in the first exodus event. In conclusion, Matthew, in his Christological-typological understanding of baby Jesus’ flight to Egypt, cites Hosea 11:1 in order to present Jesus not onl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beneficiary of the new exodus but also as the agent of the new exodus, that is, at the same time the new Israel and the new Moses.

Key Words: Matthew 2:15, Typology, Gospel of Matthew, NT use of OT, Christology, Son of God